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가 제189회 임시회를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태영 의원은 수차례 회의와 용역을 통해 결정된 동부행정타운의 설립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최복춘 의원은 동면 금빛마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박종포 의원은 물금 가촌지역에 행정민원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며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시측에 요청하였다. 또한 정성훈 의원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물금 범어윗길을 특화거리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김석규 의원은 지난 1월에 시행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순희 의원은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관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28일까지 위원회별로 안전을 심사하고,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전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